

러일전쟁과 외교혁명의 국제관계, 1904~1907

김 원 수*

1. 머리말
2. 러일전쟁, 한반도위기, 모로코 위기와 국제관계의 변화
3. 외교혁명, 그레이트 게임의 종언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4.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은 러일전쟁을 기화로 한반도를 강제로 보호국화하였으며, 동아시아의 패자로서 제국주의 패권경쟁에 합류하였다. 그것은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의 공동세력균형을 종식시키고 단독지배권을 확보한 단계로 나아간 것이었다. 한편, 그것은 전후 동아시아에 영·러·불·일의 4국양탕트(the Quadruple Entente)¹⁾를 성립시켜, 거문도사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로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역사학 / 국제관계사 전공

1) 존 앨버트 화이트(John Albert White)교수는 일본을 빼고 삼국협상(the Triple Entente)으로 부르기도는, 명확하고 완전한 묘사로서 4국양탕트라고 명명하였다 J. A. White, *Transition to Global Rivalry—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확산된 영리대립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²⁾을 종식시켰다. 이같은 양탕트는 소위 외교혁명(the Diplomatic Revolution)³⁾으로서 1907년 여름에 불일협정(the Franco-Japanese Agreement), 러일협약(the Russo-Japanese Agreement) 및 영리협상(the Anglo-Russian Convention)이 연이어 체결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 4국 양탕트는 유럽에 있어서는 삼국협상국의 삼국동맹국에 대한 대독포위망을 만들어 결국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러일전쟁기의 한반도를 중심한 국제관계 연구에는 전쟁의 이해당사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뿐만 아니라 구미 열강의 국제관계와의 다계적이고 거시적인 어프로치가 요구된다.⁴⁾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글로벌한 전망에서 러일전쟁과 국제관계를 접속한 연구에서 주목된다. 러일전쟁 100주년을 맞아 시도된 전쟁의 재평가에서는 「제0차 세계대전(World War Zero)」론이 제기 되었다는데 의미를 들 수 있다.⁵⁾ 그런데 상기 접근은 그레이트 게

Entente, 1895~1907(Cambridge.1995).xiii

- 2)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라시아는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였고 그것은 영국과 러시아의 제국화를 위한 대외정책결정에 있어서 주요 구성요소였다. 이 게임은 1815년 나폴레옹의 실권 이후부터 러일전쟁을 거쳐 1907년의 영리협상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약 90년간 지속되었다.(김원수, 「그레이트게임과 한러 관계의 지정학-거문도사건과 이홍장-라디젠스키 협약(1886)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30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4, 45~47쪽)
- 3) '외교혁명은 유럽 국제정치사에서 18세기 후반 7년전쟁과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당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용어이지만, 다른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된 3국협상과 3국동맹의 양대 진영을 구축한 국제관계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활용된다.'(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1907-1912」, 『동북아역사논총』 29, 동북아역사재단. 2010. 58쪽)
- 4) 러일전쟁 연구의 동향과 성과에 대해서는 김원수, 「한국의 러일전쟁연구와 역사교육의 과제: 개전원인을 보는 시각」, 『역사교육』. 제90집. 한국역사교육연구학회, 2004; 김원수, 「러일전쟁의 역사화를 위한 제언-러일전쟁 110주년을 상기하며-」, 『서양사론』. 제122집. 한국서양사학회, 2014; 이주천, 「러일전쟁 110주년을 기념하여-과거10년 동안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33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4.
- 5) 2005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게이오대학 동아시아연구소가 개최된 「제0차 세계대전; 1904년부터 1905년의 전쟁의 재평가」에서는 러일전쟁을 '제0차 세

임과 러일전쟁의 연계를 구상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지역전쟁으로 한정된 러일전쟁을 탈지역적 / 세계사적 시각에서 접근 가능하게하고, 한반도와 만주의 지전략적인 위상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일전쟁을 동아시아에 한정된 차원보다는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세계사적 사건으로서 고찰하려는 역사담론들도 적지 않다. 즉,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의 불안정이 세계대전의 발발로 연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논하고 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발칸의 화약고에 불을 댕긴 긴 도화선은 동북아시아의 만한문제에서 발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을 그레이트 게임이나 외교혁명과 연계한 국내외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진하다. 여기에는 러일전쟁 이후 국제정치의 변화에서 동아시아의 만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의 발칸문제나 아프리카의 모로코 문제보다는 저평가하여 변방화(provincializing)해 버린 기존의 서구 / 유럽 중심적 국제정치적 시각의 영향도 간과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우선 그레이트 게임과 러일전쟁의 역사적 맥락을 구성해 보고, 이를 전제로 러일전쟁기의

계대전'으로 재평가하였다. 학술대회의 발표는 John W. Steinberg, Bruce W. Menning, Van Der Oye, David Schimmel Penninck and David Wolff, ed,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Boston, 2005), 그리고 2년 뒤 David Wolff eds.,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vol. 2(Leiden, 2007)로 출간되었다.(김원수, 「러일전쟁 다시 읽기: 변경/경계와의 접속」, 『역사교육연구』 제19집, 한국역사교육학회, 2014.)

6) Keir A. Lieber.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 and What It Mea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2(2007). pp.155~191; John W. Steinberg, "Was the Russo-Japanese War World War Zero?", *Russian Review*, Vol.67, No.1(Jan, 2008), pp.1~7; 김원수, 「러일전쟁과 영국의 양탕트외교, 1902~1905」, 『서양사학연구』, 제32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4. 65쪽; 김원수, 「영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전략의 형성, 1900~1904」, 『서양사학연구』 제28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3, 195쪽.

국제관계의 변화를 외교혁명과 연계하여 역사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러일전쟁 전후의 한국문제, 간도문제와 만주문제는 한·중·일 3국의 트랜스내셔널한 이슈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을 넘어선 구미 열강의 세계정책과 연동된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문제였음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2. 러일전쟁, 한반도위기, 모로코 위기와 국제관계의 변화

20세기 초 국제관계로 보면, 러일전쟁은 일본·영국·미국과 러시아·프랑스·독일의 양대 진영의 이해가 연동된 국제전(International War)이었다.⁷⁾ 일본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강점하며 시작된 전쟁은 만주까지 전선이 확대되었고, 그 후 일본군은 여순전투, 봉천회전, 동해(일본해)해전에서 결정적인 승기(勝機)를 잡았다. 전쟁 중에는 대외적으로 영불협상(Entente Cordiale), 제1차 러시아혁명, 탕헤르(Tangier)사건으로 모로코위기가 발생하였고,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강화권고, 러·독 황제의 뵈르코회합(Treaty of Björkö), 태프트-가쓰라(Taft-桂)각서 교환, 제2차 영일동맹조약의 체결과 포츠머스강화회의 등 일련의 국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은 한일의정서, 외국인 용병에 관한 협정(제1차 한일협약)에 이어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지배권을 강탈하였다.

이 같은 러일전쟁 전후의 세계 정국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극동정세의 불균형과 불안정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그것은 유라시아의 그

7) 김원수, 「러일전쟁과 국제관계의 변화」, 『수선사회』 제4집,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989, 76쪽.

레이트 게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독일의 팽창주의와 서구 제국주의의 새로운 동반자가 된 일본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 그 원인(遠因)은 그레이트 게임이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시공간적으로 확산된 결과였다. 또한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에 개입하여 교주만을 확보한 독일 카이저의 신행로정책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문호개방을 앞세워 동북아시아에 진출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세계정책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후 의화단사건을 거치며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영국이 전통적인 고립정책을 전환하여 영일동맹(1902)을 체결하여 유럽협조체제의 변화를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였다.⁸⁾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러일전쟁의 발발과 종결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였다. 러시아의 패전으로 전통적인 국제관계의 주축인 영·러의 대립이 종식되고, 영·독을 중심한 새로운 대결구도가 전면에 대두된 것이 그것이었다. 다른 한편,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독점적인 대륙침략을 강행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에서 문호개방을 주도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그 총체적인 결과는 1907년의 외교혁명이었다.⁹⁾ 그것은 러불동맹과 영일동맹을 시작으로 1904년에 영불협상, 그리고 1907년 여름에 불일협정, 러일협약 및 영러협상이 연이어 체결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

8) John Lower, *The Great Powers, Imperialism, German Problem, 1868-1925* (Routledge, 1994)의 Chapter 5, Welt Politik: the Navy and Anglo-German relations.; Akira Iriye, *From Nationalism to Internationalism: U.S. Foreign Policy to 1914* (London, 1977); 신상용, 「영국 ‘신로선’ 외교에 대한 일고」, 『사학연구』 제36호, 1983, 321~323쪽; 김원수,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백산학보』, 제86집, 백산학회, 2010, 252~254쪽.

9) Graham D. Goodlad, *British Foreign and Imperial Policy, 1865-1919* (Routledge, 2000), pp.68~70; A. Parmer, *The Chancelleries of Europe* (George Allen & Unwin, 1983), p.204; E. A. Benians, John Holland Rose, A. P. Newto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Volume 1-the Old Empire from the Beginning to 178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553; J. A. White,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4국 앙탕트는 유럽에서는 삼국협상국의 삼국동맹국에 대한 대독 포위망을 만들었고,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일본의 독주와 대미견제를 가능케 하였다. 나아가 그것은 전후 일본이 행한 제3차 한일협약, 간도 진출기도, 간도협약, 제2차 러일협약, 한일 강제병합뿐만 아니라, 병합 이후 제3차 영일동맹, 미영중재조약 및 제3차 러일협약에도 영향을 미쳤다.¹⁰⁾

그렇다면 러일전쟁 이후 세계사적인 파장을 몰고 온 외교혁명은 어떻게 성립된 것일까? 그 발단은 영불의 앙탕트 모색과 영독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의 파쇼다 사건(The Fashoda Incident)을 계기로 호전된 영불의 관계개선 노력은 러일전쟁 발발 이전인 1903년 5월과 7월에 걸쳐 추진된 에드워드 7세(Edward VII)와 프랑스 대통령 루베(Emile Loubet)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러일전쟁이 발발한지 2개월 후인 1904년 4월 8일에 영불협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협상은 영국이 이집트에서, 프랑스가 모로코에서 우월권을 서로 보증하고 프랑스는 모로코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협상은 독일의 세계정책(Weltpolitik)에 대항하는 외교적 조치로서 궁극적으로 군사적 협력을 담보하는 것이었다.¹¹⁾

하지만 러일전쟁은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이 연패함에 따라 이로 인해서 독일에게는 영불 앙탕트를 시험하고, 러시아에게 접근할 위한 호기를 제공하였다. 1904년 8월, 황해와 울산만 해전으로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현저하게 쇠약해 졌기 때문에 발트 함대의

10)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1907~1912」

11) 크리스토퍼 하워드 저, 김원수·김상수 역, 『대영제국의 영광스런 고립』 (한양대학교출판원, 1995); E. W. Edward, "The Japanese Alliance and the Anglo-French Agreement of 1904" *Historical Review*, vol.IX, No.1, (1940), p.20.

극동회항문제가 제기되었는데 1904년 가을에 독일의 대러 동맹교섭은 이와 관련되어 진척된 것이었다. 10월 24일에 홀슈타인(Friedrich von Holstein)은 주독러시아대사 오스텐-자켄(Baron von Osten-Sacken)을 개입시켜 독일의 대륙동맹 구상을 설명하고, 발트 함대에게 석탄을 공급하는 대가로 러시아와 동맹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람스도르프(V.N. Lamsdorf) 외상은 러불의 양탕트를 파괴하려는 책동으로 경계하였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¹²⁾ 이후 독일의 대러 접근은 재차 시도되었는데, 빌헬름 2세가 지중해 항해 중에 1905년 3월 31일, 모로코의 탕헤르항에 상륙하여 술탄과 회견하고 모로코 왕국의 독립과 문화 개방의 유지를 요구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¹³⁾

그런데 이 탕헤르 사건도 또한 러일전쟁의 전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05년 3월 초에 벌어진 봉천회전(3/1-10)에서 일본의 선전(善戰)과 승전은 러시아의 우위를 점했던 열강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예상외였기 때문이었다. 봉천회전에서 대승한 일본은 이를 기회로 한국에 대한 보호 방침을 확정하고, 영일동맹의 갱신에 박차를 가하였다¹⁴⁾ 이에 더하여 동해 해전(5/27-28)에서 발트함대(제2태평양함대)의 참패는 충격이었다. 그것은 러일전쟁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패전소식이 전해지자 영국과 러시아는 곧바로 영·러 교섭을 타진하였다. 하지만 독일은 교섭이

12) 義井博, *ドイツの世界政策と第一次世界大戦*, 東京: 清水書院, 昭和 51, 67~68쪽; 김원수, 「러일전쟁과 영국의 양탕트외교」, 56~58쪽.

13) E.W. Anderson, *The First Moroccan Crisis, 1906~1914*(Chicago, 1930) 및 Paul Kennedy, *The Rise of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Boston: allen & Unwin, 1980), pp.275~285. 당시 술탄은 프랑스에 강경대응하고, 독일은 모로코문제에 관한 열국회의의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독불관계는 긴장되었다.

14) Nish,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diplomacy of two island empire 1894~1907*(London: Athlone Press, 1966), p.308;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18 明治38年 5月 24日. 동맹교섭은 5월 17일의 랜스다운-하야시회담에서 구체화되었다.

영불의 강화중재로 이어질 경우 영·러·불·일의 4국 연합이 구상될 가능성을 극히 우려하였다. 고로 카이저는 러일전쟁을 이용한 최후의 대러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포츠머스 강화교섭이 개시되기 직전인 1905년 7월 24일의 뵘르케 회합이 바로 그것이었다.¹⁵⁾

동해해전의 패배는 미국에게도 충격이었다. 6월 9일에 추진된 루스벨트의 강화알선은 러시아의 완전한 패배를 방지하여 극동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데 있었다. 일본은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지만 전비가 바닥난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였다. 고로 열강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인받으려 하였다. 미일간의 단순한 의견교환 이상의 양해에 도달한 7월 29일의 태프트-가쓰라 각서가 바로 그것이었다.¹⁶⁾ 반면에 영국은 그레이트 게임의 차원에서 예상되는 러시아의 인도침략 위협 때문에 러시아가 재기불능상태에 달하기를 일면 바라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고민은 아프가니스탄 및 인도방위를 위한 일본의 군사적 담보도 중요했지만 일본에게 대영제국 일부의 방위를 의존한다는 것은 대영제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따라서 영국은 일본에 앞서 우선적으로 프랑스를 견고하게 지지할 필요가 있었다.¹⁷⁾

동아시아와 모로코의 위기에 더하여 국제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 중재를 통해 러일전쟁에 개입한 것이었다. 강화 회의를 주도한 루스벨트는 프랑스와 독일의 협조를 구하고, 영국에게도 일본을 설득하여 강화조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5) 카이저는 니콜라이 2세와 회견하고 영국에 대항하여 양국의 단결을 재확인하고, 제3국의 공격에 대비한 상호원조 조약에 조인하였다. 이 밀약은 빌로우(Bernhard von Bülow)와 비테가 반대해서 발효되지 못하였다.

16) Chay Jongsuk, *Diplomacy of Asymmetry: Korean-American Relations to 1910*(Univ of Hawaii Press, 1990), p.144.; Richard Storry, *Japan and the Decline of the West in Asia, 1894~1943*(New York; St. Martin's Press, 1979), pp.72~73.

17) 발포어는 1905년 1월 영국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공언까지 했다,

영국은 엄정중립을 논하며 거절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05년 8월 12일, 영국은 일본과 영일동맹의 갱신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은 일본에게 한국의 보호를 정당화시켜준 점에서 을사늑약을 사전에 승인한 것과 같은 조치였다.¹⁸⁾ 한편 같은 날 포츠머스에서는 강화교섭을 위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져, 9월 1일에는 휴전 조약, 5일에는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다.¹⁹⁾ 이 같은 사전조치를 배경으로 10월 27일, 일본의 각료회의는 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수중에 넣을 것을 결정하고, 결행시기를 11월 초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달성하였고, 23일에 일본정부는 공식으로 조약 전문을 발표하고 관계 각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일본은 12월 22일, 청일조약을 체결하여 만한철도이권을 확보하고, 관동도독부의 군정서를 통한 만주침략 기도를 본격화하였다.

1905년 말에 러일전쟁이 종결되자, 곧이어 1906년 1월 16일에 모로코 위기를 해결키 위한 국제회의가 스페인의 알헤시라스(Algeciras)에서 소집되었다. 영국의 프랑스 지지는 당연한 것이었고 삼국동맹의 이탈리아는 1900년의 불이협상에 의해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점령을 지지하는 약속으로 프랑스의 모로코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하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도 프랑스와 대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독일을 지지하는데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독일의 문호개방주의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었지만 그것이 독일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포츠머스에서 귀국 도중에 전권위원 비테(Sergei Yulyevich Witte)가 영국과 프랑스로 부터 재정지원

18) 김원수,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와 영국의 대한정책-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201~205쪽.

19) 『고종실록』 광무 9년 9월 5일; 『황성신문』 광무9년 9월 6일, 8일, 11일, 15일, 18일;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年表 1905年 9月 5日 文書 日露講和條約

약속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뵈르코 밀약을 반대하였고, 러불동맹의 차원에서도 러시아의 프랑스 지지는 당연한 것이었다. 고로 회의 결과 모로코왕국의 독립과 문호개방의 원칙이 확인되고 프랑스의 진출이 묵인됨에 따라 독일은 외교적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²⁰⁾

한편 영국은 상론했듯이 이미 동해해전 3일 후인, 1905년 5월 31일에 독일포위망 구축을 위한 대러접근을 개시하였다. 그것은 러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가 인도 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경계하여 이란, 아프가니스탄, 티베트 등 인도주변의 세 지역에서 상호 이해를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1905년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공표하기에 앞서 성문(成文)을 러시아에 제시하고, 그해 가을부터 비테와 약속한 자본원조를 개시한 것도 대러 접근노력의 일환이었다. 다른 한편, 러시아는 전후, 프랑스 이외의 우방을 찾고 있었는데 그 캐스팅보트는 영불협상을 주도한 프랑스였다.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는 독일과 적대하고 있었고, 전후 러시아의 재정 복구에 주요 채권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로 알헤시라스회담에서 독일에 대항하여 러불이 공조하였는데, 당시 영국에게 우호적인 발언의 기회를 주라고 러시아를 고무한 것이 바로 프랑스였다.²¹⁾ 또한 1906년에 취임한 신임 외상 이즈볼스키(Alexander Izvolsky)는 서구적 자유주의에 친숙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영국과 러시아의 반독경향은 합일점을 찾을 수 있었고 대독 강경파 외상인 그레이와 이즈볼스키 사이에 1906년 6월 7일, 공식적으로 영·러 교섭이 개시되었다.²²⁾ 러시아의 재정난과 프랑

20) C.J. Bartlett. *The Global Conflict 1880~1970: The International Rivalry of the Great Powers*(Longman, 1984), p.49.

21) B.F. Oppel, 'The Waning of a Traditional Alliance, Russia and Germany after the Portsmouth Peace Conference', *Central European History*, vol.5, Atlanta(1972), pp.318~329.

22)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가 영국대사와 영러접근에 관한 회담을 시작한 것은

스의 외교적 압력에 의해 교섭이 개시되어, 1907년 8월 31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즈볼스키외상과 영국전권 아더 니콜슨(Arthur Nicholson)간에 영러협상이 조인되었다. 페르시아는 3지역, 즉 북부의 러시아, 남부의 영국, 중간의 중립지대로 분할되었고, 러시아는 페르시아 만과 아프가니스탄, 영국은 티베트에서 상호 이권을 인정하였다. 영·러 양국은 국지적 분쟁을 해결하고 전 지역에 걸쳐 상호제휴와 협조의 길을 모색하였다.²³⁾

영러협상의 성립은 러일전쟁 이후 국제정치상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1854년의 크림미아전쟁 이래로 국제질서의 중심축은 영러 대립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러일전쟁 후, 협상에 의해 영·러 양강트가 성립하여 그레이트 게임이 종식되고, 그 결과 영·러·불·일 4개국 이 국제정치상 하나의 협조체제로 집결되었다. 이같은 1907년의 양강트 체제는 1914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지속되었고, 열강들은 군비를 증강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무장된 평화를 지속시키고 있었다.²⁴⁾ 그렇다면 외교혁명은 한반도를 위요(圍繞)한 국제관계와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1905년 10월로서, 러시아 황제가 영국을 가상적으로 삼아 카이저와 체결한 비르피조약의 무효를 선언한 직후였다. [G.P. Gooch and H.W.V. Temperley ed.,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8~1914*, Vol.III(London: H.M. Stationery Office, 1927) pp.205~208, No. 195-203]

- 23) Mehra Parshotom, *The North-eastern Frontier. 1906~1914*, vol.1(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4~8; R.P.Churchill, *Anglo-Russian Convention of 1907*(The Torch Press, 1939); John. A. Murray, *British Policy and Opinion on the Anglo-Russian Entente, 1907~1914*(Ph.Dis, Duke University, 1957); Rosmary Tompkin. *Anglo-Russian Diplomatic Relations 1907~1914*(Denton Texas. Ph. Dis, 1975. 5).
- 24) Michael Sheehan, *The Balance of Power-History & Theory*-(London: Routledge, 1996), pp.134~136.

3. 외교혁명, 그레이트 게임의 종언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상론했듯이 외교혁명의 4국 양탕트 체제는 유럽에서는 대독 포위망,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견제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그것은 전후 일본이 행한 제3차 한일협약, 간도 진출기도, 간도협약, 제2차 러일협약, 일한 강제병합뿐만 아니라, 병합 이후 제3차 영일동맹, 미영중재조약 및 제3차 러일협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러일전쟁과 외교혁명과 만한문제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일까?

그 단초는 전후 명치 일본의 제국화 과정에 있었다. 일본은 대한 제국을 보호국화한 이후에 통감부를 통해 한반도 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초대 통감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의 역할이 한국의 영토 보전과 시정개선(施政改善)의 조언, 외교권 주관, 한국 왕실의 안전 보장 등에 있고 한국을 부식(扶植)하고 개발하여 양국이 서로 복리를 얻는 데에 있다는 전제 하에 시정개선을 강조하였다.²⁵⁾ 그것은 한국에 대한 보호통치를 내세우며 점진적인 지배권의 확대를 꾀하는 조치였다. 이와 동시에 만주에 대해서는, 1905년 12월 청일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만한철도이권을 탈취하고, 곧이어 일본 군부는 관동도독부의 군정서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설립 등의 만주선점을 기정사실화하였다.²⁶⁾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인 군사조치는 러시아와 예상되는 제2차 러일전쟁, 즉 러시아의 복수전을 대비하는 것인 동시에, 러일전쟁을 통해 선점한 한반도와 만주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같은 행동은 러일전쟁 이전에 동북아시아의

25) 釋尾春菴, 『朝鮮併合史』, 朝鮮及滿洲社, 1926, 650쪽; 森山茂徳, 『近代韓日關係史研究』(김세민 역, 현음사, 1994), 206쪽; 伊藤博文, 「韓國統治難」, 『朝鮮之實業』 24, 1907, 19~24쪽.

26) 馬場明, 『日露戰爭後の滿洲問題』, 東京: 原書房, 2003, 1~20쪽.

문호개방의 대변자를 자처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침략적인 행위였다.

당시 영국, 미국과 독일은 알헤시라스에서 모로코 문제 해결의 와중에서도 침략적인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를 간과하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06년 3월 19일, 주일영국공사 클로드 맥도널드(Claude MacDonald)와 26일의 주일미국대리공사 헌팅톤 윌슨(Huntington Willson)의 대일항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양국은 일본 군부의 만주문호 폐쇄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²⁷⁾ 동월 31일, 영국대사 맥도널드가 통감 이토에게 보낸 서한에는 만주 개방에 관한 영·미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다.

「혹은 이것이 나의 오견(誤見)일지 모르지만, 묵하 영미의 무역상사에서 거의 공언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만주에 있어서의 일본의 군관헌(軍官憲)은 군사 행동에 의해서 외국무역에 구속을 가함으로써, 만주의 문호는 앞서 러시아의 수중에 있었던 때에 비하여, 한층 더 폐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폐쇄주의는 오로지 구미인에 대해서만 행해질 뿐 일본인에 대해서는 개방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작년 미국은 전신 명령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엄중히 대조 확인케 하였고, 영국정부 또한 같은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우견에 의하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일본에 동정을 보내고 군자금을 공급한 諸외국이 일본에 대하여 왜 그와 같이 동정을 보내고 군자금을 공급했는가 하면, 그것은 일본이 문호개방주의를 대표하고 이 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명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군사적 방면에서 창도되고 있는 설을 들어 보면, 러시아는 조만간 필시 복수를 기도하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이에 대한 설비를 만주에다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도 혹은 그럴 듯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은 외국의 동정을 잃게 되어 장래 개전의 경우에 매우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²⁸⁾

이 같은 열강의 강력한 항의를 누구보다도 우려했던 통감 이토는 만주를 타국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조선 및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

27) 김원수,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1905~1912」, 『만주연구』 제16집, 만주학회, 2013, 38~39쪽.

28) 鶴見祐輔, 『後藤新平』 第2卷, 勁草書房, 1965~67年, 656쪽.

인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한국문제가 만주문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1906년 5월 22일, 수상관저로 원로들과 정부 및 군부의 수뇌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만주정책을 논의하였다. 만주문제 협의회는 핵심은 영국과 미국이 러일전쟁 시 일본을 적극 지원하였으므로 만주에서 영미의 상업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군정은 지양하고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의 만주 경영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일동맹의 상호의존 관계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⁹⁾ 일본은 포츠머스강화조약과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에 의거해 전쟁기간에 건설한 군용철도를 자국의 만주 권익으로 확정하고 경영하게 되었는데, 경영주체를 전시의 육군성에서 전후의 민정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06년 3월과 26일자 영미의 항의는 여기에 근거한 것이었고, 회의 결과 군정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안동, 대동구에 이어 대련항의 개방이 검토되었다.³⁰⁾

하지만 민정 전환의 대안으로서 고다마겐타로(兒玉原太郎)과 고토신페이(後藤新平) 등 적극론자들은 대러작전상 블라디보스토크 요새를 공략키 위해 간도 확보의 중요성을 수렴한 제국국방 방침을 정하고, 관동도독부 관제 공포 등 만주진출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1906년 7월 13일 고다마를 설립위원장으로 한 만철설립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고다마가 동월 25일 급서하면서 11월에 고토신페이가 만철 초대총재가 되었다. 타이완에서 식민통치를 주도했던 그는 만철의 궤도를 광궤로 바꾸고 대련항을 건설하고 무순탄광을

29) 日本外務省 編纂, 『日本外交文書』第39卷, 1冊, 本國際聯合協會刊, 1956昭和31, 195~199, 204~212, 212~213, 219~220項; 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主要文書(上), 原書房, 1987, 245~248쪽.

30) 寺本康俊. 『日露戰爭以後の 日本外交パワー・ポリティクスの中の滿韓問題』, 大學図書, 1999, 222~254쪽; 이노우에 유이치 지음, 석화정·박양신 옮김,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 지식산업사, 2005, 171~172쪽; 운노 후쿠주, 정제정 옮김, 『한국병합사 연구』, 논형, 2008, 348쪽.

개발하였으며, 야마토 호텔을 경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침투의 대안으로서 경제적 침탈을 기반으로 한 만철경영에 착수하였다.³¹⁾

또한 일본은 안동, 대동구 등 만주개방을 표방한 영·미 무마책과 더불어 다른 한편, 대러 접근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였다. 전후 일본의 국내 사정상 만주시장은 기필코 획득해야 할 과제였으나 영·미, 특히 미국의 자본 공세가 저해 요인이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러일의 제휴는 불가불한 것이었다. 더구나 포츠머스에서 미국의 중재방식에는 러·일 모두가 불만족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강화 이후에도 제 2차 러일전쟁을 우려하여 육해군의 증강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육군은 러시아가 기한 전에 철수할 경우에 만주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포츠머스 조약의 규정을 무시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 조약에 규정된 무역 및 어업협정의 체결에 관한 건도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05년에서 1906년에 걸친 러일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은 전후에도 연속된 극동에서의 러일 긴장상태는 루스벨트의 세계정책 구상에는 딱 들어맞는 각본이었다. 1904년 3월에 루스벨트는 미국과 독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전쟁의 진행과정과 그 결말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워싱턴주재 독일대사 슈테른부르크(Hermann speck Von Sternberg)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³²⁾ 즉, 「쌍방국이 가급

31)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 桂太郎と後藤信平』, 東京: 南窓社. 1998, 105~114쪽; 小林英夫, 『滿鐵-知之集團の誕生と死』, 吉川弘文館, 1996, 40쪽.

32) Edward B. Parsons, "Roosevelt's Containment of the Russo-Japanese War",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38, No.1(Feb, 1969), pp.21~44; Tyler Dennet, *Roosevelt and the Russo-Japanese War: A Critical Study of American Policy in Eastern Asia in 1902~1905, based Primarily upon the Private Papers of Theodore Roosevelt*(Garden City, NY; Doubleday, Page, 1925).

적 피폐할 대로 피폐해질 때까지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이 장기화해야 한다는 것, 그들의 이해관계가 절충하고 있는 지역이 강화 체결 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목적에 소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세력범위의 경계선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그려졌던 것과 같은 상태로 교차해야 한다는 것 등.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는 전쟁의 양상이요 결말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항상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인은 교주만의 독일인이나 필리핀의 우리(미국인)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며, 러시아의 관심은 서부국경에서 극동으로 돌려져 그곳에 못 박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등 지역에 대한 위협은커녕 오히려 러일전쟁은 미국이 중국과 만주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루스벨트의 생각과는 달리, 1906년 초 모로코에서 유럽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러일 관계가 첨예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불에게는 독일과의 전쟁이라는 위기가 여타의 문제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영국에게는 러시아와 제휴/협상관계라는 현안은 영일동맹의 관계에서 보면 러일 관계가 조정되지 않는 한, 이에 호응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³³⁾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은 영불의 재정적, 또는 외교적 주선에 의해서 1907년 7월 30일에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외상 이즈볼스키에 의해 공식협약과 비밀협약으로 된 일반적 정치협정으로서, 영일동맹조약, 루트-다카히라 협정, 또는 불일협정 등과 동일한 기초 위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즉, 그것은 중국의 문호개방과 영토 보존의 원칙을 세력범위로 분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 것이었다. 러일협약은 만주

33) 김원수, 「러일전쟁과 영국의 양탕트외교, 1902~1905」, 55~63쪽; 김원수, 「영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전략의 형성, 1900~1904」, 192~195쪽.

지역을 러일의 독점적 세력범위로 정하고 이 지대에는 영·미 자본 가라 할지라도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두었다.³⁴⁾ 이 같은 만주지역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로 이후 미일관계는 필리핀과 미국이민문제를 포함하여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영일관계는 만주지역에서 동일보조를 취하는 입장에서 영국자본가의 불만은 있었으나 유럽에서 러시아를 독일에 대항케 하려는 계산 때문에 표면상 러일협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러·일의 접근과 일본의 만주 독점화 기도는 점진적으로 영일관계를 냉각시켜 결국 영일동맹을 폐기케 하는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³⁵⁾

그런데 전쟁이 종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극적으로 교전국간에 협상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동 협약의 비밀조약 및 부가조항이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러·일은 만주의 세력범위의 확정과 이에 대한 상호승인을 행하고, 러시아는 금후 한일관계에 간섭하지 않으며 일본은 외몽고에서 러시아의 특수성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러일협약의 조인에 앞서 일본이 1906년 7월 24일에 정미7조약을 체결,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고 8월 1일에 한국군대를 해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본의 한국병합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대일견제 때문이었다. 그것은 전후 러시아가 한국문제에 관한 한, 1906년 초반까지는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포츠머스강화회담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 및 대한제국의 국제적 지위를 헤이그평화

34)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1(1972), pp.33~48; Peter Burton, A New Russo-Japanese Alliance?-Diplomacy in the Far East during the World War I, *Acta Slavica Iaponica*, 11:57~58(1993),

35) 黒羽茂, 『日英同盟の軌跡』, 下, 文化書房博文社, 1987.

회의에서 제기하여, 한국문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의 제 3조항에서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Guidence), 감독(Control), 보호(Protection)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받고 있었다.³⁶⁾ 당시 영국은 만주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일관되게 일본의 보호국화 기도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견제정책을 유지했다.

이 같은 정황은 1907년 5월 19일 이토통감이 하야시다다스(林董) 외상에게 보낸 전문에 잘 나타나 있는바, 그것은 불일협정과 러일협약의 성립을 독촉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토는 고종이 밀사 헬버트(Homer Bezaleel Hulbert)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것을 전하고 동시에 차제에 러시아와 프랑스와도 아직 협상이 성립되지 못한 것은 유감임을 표명하며, 불일협상만이라도 속히 체결을 희망하였다.³⁷⁾ 이 전문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 헤이그 특사파견과 불일협정, 러일협약의 상호 작동성을 기술했 것이지만 그 배경을 천착해보면, 그것은 이토가 대한제국의 헤이그특사 파견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간도 진출계획을 추진키 위한 실천적 방책을 토로한 것으로서 당시 러불교섭의 긴급성을 통감한 조급한 이토의 심정을 대변한 문건이었다.

36) Wood, G. Zay. 1921.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Anglo-Japanese Alliance*, Fleming H. Revell Company. pp.150~153; 片山 慶隆, 2005. 韓國保護國化をめぐる國際關係史 1902~05: イギリスの對韓・對日政策を中心として, *Discussion Paper Series 008*, Center for European Research, 21th Century COE Programme. 1905년 8월 12일 런던에서 하야시와 랜스다운 간에 작성된 조약본문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영국은 일본이 이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여러 나라들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7) 김원수, 「한반도전쟁과 대한제국의 헤이그특사파견: 세계사적 접근」, 『역사교육연구』 제21호,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217~218쪽; 日本外務省 編纂, 『日本外交文書』 第39卷1冊 427쪽.

그러나 이와 같은 러일의 상호견제가 유화 분위기로 반전된 것은 알헤시라스 국제회의를 전후해서 였다. 그것은 회의에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간의 협조가 모색되었기 때문이었고, 이 같은 협조의 분위기와 여파는 한국문제에도 곧바로 파급되었다.³⁸⁾ 1906년 6월, 주일영국공사 맥도널드는 보고하기를, 러시아 정부가 최근에 일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처음 단계에서는 한국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초대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즉각 초대를 철회하였다고 전하였다. 실제로 1907년 6월 15일에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영·러, 러·일, 불·일 간의 외교교섭은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한국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6월 29일의 헤이그밀사의 참가거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7월 19일, 고종의 양위에 이어 7월 23일에 일본 내각회의가 제1차 러일협약 안을 결정하고, 하루 뒤인 24일에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러·일의 협상교섭에 영향을 받은 것은 한국문제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만주와 간도 침투기도, 소위 통감 이토의 간도파견대 진출계획 또한 마찬가지였다. 원래 간도 진출은 1907년 4월 13일로 계획되었지만, 7월 30일에 러일협약이 조인되고 난 후인 8월 18일에야 결행되었다. 그것은 당시 불일간에 교섭이 진행 중이었고, 프랑스가 러일협약을 중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일협정은 하야시 외상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그는 주일프랑스공사 제라드(Gerade)에게 극동에서의 현상유지를 확고히 하고, 또한 러시아가 동의하게 될 협상 정책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일간의 협정 체결을 희망하였다³⁹⁾ 당시 프랑스도 일본과 제휴가 필요한

38) Memorandum communicated by Japanese Charge' d'Affaires. August 10, 1906, No.87405. Confidential. FO.371/179, (22) p.108.

39) Henri Hauser, *Historie Diplomatique de L'Europe, 1871~1914*, vol.II.

사정은 있었다. 프랑스는 적대하는 독일과 개전할 경우, 러시아는 일본에 의해 배후를 위협받을 위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동아시아에서 보유하는 권익과 영토를 독일로부터 방위해야할 필요성으로도 일본과의 양탕트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일본의 제의를 호기로 삼아 협상타결을 시도하고, 이를 기화로 예상되는 러일협약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불일협정은 일본에게도 곤란한 국가재정을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뿐 만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청일전쟁 시기에 삼국간섭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킨 러·불·독의 삼국 제휴를 붕괴시키고,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독일포위망을 완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영·불이 표방하는 대독포위진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다액의 채권을 영불금융시장에서 획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었다. 고로 러일협약이 체결된 후 8월 18일, 한국군대의 해산과 동시에 통감부는 간도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19일 사이토(齊藤季治郎)소장이 회령에서 용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일본의 간도문제를 통한 만주침투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⁴⁰⁾ 이처럼 일본의 한국보호국화 강화와 만주독점화 기도와 간도침투는 애초부터 일본의 대영접근뿐만 아니라 대러, 대불접근과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4국 양탕트는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화와 만주독점화 기도와 간도문제가 본격화된 1907년 여름, 6월 10일의 불일협정, 7월 30일의 러일협약에 뒤이어 8월 31일의 영러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성립되었다. 이로써 1815년에 나폴레옹이 실권한 이후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까지 약 90년의 그레이트 게임, 영러대결은 종식되었다.⁴¹⁾ 하지만 비서구국가인 일본의 전진적인 조치, 즉 일본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29. p.10. 불일협정은 파리에서 프랑스외상 뽀송(pichen)과 栗野대사와의 사이에 조인되었다.

40)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271쪽.

중심의 4국 양탕트는 결과적으로는 반독진영에 가담하는 것이었고, 양탕트와 병행된 일본 군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독일, 미국 및 청국의 우려를 낳고 있었다. 미국은 문호개방정책과 중국의 영토보전 원칙을 표방, 이를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만주정책을 견제하였고, 일본을 대상으로 해리먼(E, H, Harriman)의 철도구상⁴²⁾, 오렌지 계획⁴³⁾, 녹스의 만주철도중립화안⁴⁴⁾ 등으로 대처하였다. 중국은 1907년 극동의 4양탕트를 중국분할의 사전 조치로 경계하였고, 특히 남만주와 북만주 및 몽골에서 상호 영향력을 인정한 러일협약은 이러한 의구심을 확실하게 만들었다.⁴⁵⁾ 유럽에서 외교적 고립에 처한 독일은 반일(反日)이라는 맥락에서 독미청 3국간에 제휴조건을 찾으려하였고, 그것은 1907~1908년과

41) Peter Hopkirk. *The Great Game*, Kodansha International, 1992; D. Gillard, *The Struggle for Asia 1828~1914 - A Study in British and Russian Imperialism*, (Methuen & Co Ltd, 1997); 衛藤藩吉, 『近代東アジア 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部, 2004, 83~104쪽.

42) 포츠머스 강화체결 후 미국의 철도왕 에드워드 헨리 해리먼은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철도이권중에 장춘(신경)부터 대련까지의 남만주철도의 공동경영을 1억엔의 재정지원과 함께 맡게 해달라는 요청을 일본에 제안했다. 가쓰라 수상은 해리먼의 제안을 수용하였지만 고무라의상은 반대하였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방침 파기로 이후 미일관계는 소원해지고 갈등양상으로 접어들었다.

43) 오렌지계획(오렌지플랜, War Plan Orange)는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쟁 계획이다. 컬러코드 전쟁계획의 하나이며 이것 자체는 교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가를 망라하고 각각 분류되고 계획된 것이다. 블랙은 독일, 레드는 영국, 오렌지는 일본이다. William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Austin, 1954), pp.204~207.

44) 간도협약 직후 인 1909년 11월 16일, 미국 국무장관 녹스는 만주철도의 중립화안 제기를 통해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만주철도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포츠머스 강화조약 제7조와 루트-다카히라협정의 상업상의 기회균등 규정에 의거하여, 남만주와 북만주를 세력권으로 확보한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고, 국제자본 신디케이트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요컨대 탈러외교를 통해 미국이 만주철도를 관할하려는 것이었다. 入江昭, 「轉換期の日美關係 1896~1914」, 細谷千溥 編, 『日美關係通史』, 東京大學出版會, 1995, 58~61쪽.

45) Charles Vevi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06~1913*(New york, 1968), p.43.

1910~1911년의 2회에 걸쳐서 카이저가 추진한 독미청 3국의 동맹 기도로 구체화되었다.⁴⁶⁾

그러나 독일의 대일전제조치에 대해 일본은 영미와의 공조를 모색하였고, 그것은 영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악화된 일미관계의 개선 조치로서 1908년 11월 30일에 루트-다카히라 협정(Root-Takahira 高平 Agreement, 태평양방면에 관한 일미교환공문)을 체결하였다. 그것은 독미청 동맹교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관계를 개선키 위한 고무라 외상의 외교적 선행조치였다. 따라서 이후 일본은 대미관계를 개선한 이상 미국의 만주문호개방정책과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국제정치의 현실은 전후 일본이 추진한 적극적인 만주독점화 정책과는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있었다. 일본이 루트-다카히라 협정 이후, 곧바로 간도문제를 포함한 만주현안문제 타결로 외교로선을 전환한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간도문제를 비롯한 만주현안 해결이 청의 헤이그 중재재판회부를 표방한 외교적 제스처에 직면하자,⁴⁷⁾ 열강의 개입을 우려한 나머지, 일본은 그것을 청일전쟁시 삼국간섭과 견줄만한 외교적 위기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이후 대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총체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1909년 3월 말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구체화된 첫 번째 대안은 한반도병합을 위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 즉 한반도 강점을 위한 선행 조치였다.⁴⁸⁾

46)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68~72쪽; Richard F. Szimpl, *Keiser Wilhelm II and the Attempt to Form a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against Japan*, *Nanz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Vol 20(1998) 스티플교수는 루트-다카히라 협정이 독미청 3국동맹 구상을 잠정적으로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타격'(a fatal blow)을 주었다고 논하고 있다.

47) *The New York Times*, March 31, 1909; 『日本外交文書』 42-1. 244~246, 248~249. 262~264.

48)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278쪽; 김원수,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262~263쪽;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

4. 맺음말

러일전쟁과 포츠머스강화회의는 동북아시아의 잠정적 평화만을 보장하였을 뿐 위기와 긴장은 연속되었다. 을사늑약은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것이었고, 전후 간도 및 만주현안문제 역시 청일간의 교섭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의 대륙을 향한 노골적인 팽창 기도는 전전과는 다른 이중성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과 만주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권범위, 이익범위의 안전보장, 권리획득을 위해서 극히 위압적인 외교를 전개하는 반면에, 구미열강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륙정책을 승인받기위해 다각적으로 양탕트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 같은 양면 조치들의 최종 목표는 승전한 일본이 후발 제국주의자로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전후 명치 일본의 제국화를 위한 만한정책은 4국 양탕트의 구축과 영국의 동아시아로부터 후퇴, 독일과 미국, 특히 후자의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도전과 반응은 일본의 한국병합, 신해혁명, 제1차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만주 사변, 태평양전쟁에 까지 연계되었다.

따라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초 국제관계에서 러일전쟁의 영향은 전지구적인 세력판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영국이 러일개전 전에 실현되기를 바랐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현실화되었다는데 있었다. 즉, 1907년 8월 31일의 영러협상은 나폴레옹전쟁이후 국제관계에 있어서 위협요소이던 영러대립의 그레이트 게임을 종식시켰다. 한편 유라시아에서 그레이트 게임이 종식된 반면에 일본은 후발 제국주의자로서 지역 열강으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구외교(old diplomacy)⁴⁹⁾와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관계], 68~72쪽.

49) 千葉功,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2008.

Europe)의 변화를 초래하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녔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적대적이어야 할 러일관계가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호전됨에 따라 중국에서 영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을사늑약과 일청조약을 빌미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는 상황과 전쟁 전에 약속한 문호개방정책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만한정책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따라서 그것들은 영미의 우려와 불만의 씨앗이 되었고 나아가 영일, 미일 적대의 단초가 되었다.

그 전환점은 1907년이였다. 바로 그 해에 대내적으로는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황제의 퇴위, 제3차 한일협약과 간도 진출이 실행 단계에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외교혁명으로 불일협정, 러일협약 및 영러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4국 양탕트가 가동하였고, 유럽에서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두 무장된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대내외적인 사건들은 상호 연계를 갖는 동시 다발적인 트랜스내셔널한 사건들이었다. 이처럼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만한 침략정책은 제 1차 영일동맹, 제2차 영일동맹과 연계된 만한침략구상의 연속된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4국 양탕트를 통해 미국과 독일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전쟁위협을 제어한 다각적인 양탕트 구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5.9.30, 심사수정일: 2015.11.18, 게재확정일: 2015.11.20.]

주제어 : 러일전쟁, 외교혁명, 4국양탕트, 그레이트게임, 포츠머스 강화회의, 알헤시라스 회의, 영불협상, 영러협상, 러일협약, 불일협정, 만한문제, 을사늑약, 간도문제, 루트-다카히라협정, 독미청동맹

<ABSTRAC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Diplomatic Revolution, 1904~1907

Kim Won-soo

This article is to reconsid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usso Japanese War and the Diplomatic Revolution from 1904 until 1907 from the global points of view.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ing on interconnecting it with the Portsmouth Peace Conference, the Algeciras Conference and the Quadruple Entente. This work will be revealed clearly that the Korea and Manchurian Problems including Gando matter happened in these periods were the transnational/global issues that had been not only made by territorial disput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the result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made by Britain, Russia, France and Japan. In this research, I specially was to be connecte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of the Russo Japanese War with the Diplomatic Revolution happened by Quadruple Entente which was overlooked until now. It will be broaden the horizon of the Russo Japanese War Studies in these periods.

As mentioned above, Japanese military invasion and protectorate of Korean peninsula during the war were illegal and they were executed with coercive measures. On the pretext of the dispatch of the Hague special envoy, Japan deposed the Korean king by military force, as well as illegally concluded the 3rd Korean-Japanese Agreement(1907) plundering Korea's internal affairs and furthermore, dismissed the Korean army by force, to infiltrate into the Gando Area in Manchuria. On the other h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Franco-Japanese Agreement, the Russo-Japanese Agreement, and the Anglo-Russian Convention were concluded in 1907. This Quadruple Entente was to bring about the End of "the Great Game". Since then,

In East Asia, Quadruple Entente system based on the Anglo-Japanese Alliance was operated, and in Europe, Triple Entente system were constructed. Interaction of Quadruple Entente was forced to threaten and encircled German's Triple Alliance in Europe as well as to restrict the American Expansion from Asian Pacific. Therefore, Germany actively took a plan for German-China-American Alliance. Nevertheless, Japan had free hands in Northeastern Asia regions under the British diplomatic assistance. Such an International change in East Asia was able to make shape of realizing Japanese plans to protectorate Korea and preoccupy Southern Manchuria including Gando region from 1904 until 1907.

Therefore, Japanese invasion into Korea and Manchuria has been not only influenced by Quadruple entente system, but also controlled by intervention and restriction of German and America. Such actions were proved by Kaiser's plan for German-China-American Alliance connection from 1907 to 1909, Theodore Roosevelt's Initiative on the Root-Dakahira Agreement in 1908, Anglo-Japanese preliminary contacts with Gando and Manchurian problems in 1909. All these measures were revealed that Japanese protectorate of Korea and preoccupation of Manchuria had been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Quadruple system. It was the Imperial struggle for Reestablishing the sphere of influence in East Asia.

Key Words : the Russo-Japanese War, the Diplomatic Revolution, the Quadruple Entente, the Great Game, the Portsmouth Peace Conference, the Algeciras Conference, the Entente Cordiale, the Anglo-Russian Convention,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the Franco-Japanese Agreement of 1907, Manchurian-Korean Problem,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05, Gando problem, the Root-Dakahira Agreement, The German - American - Chinese alliance.